

전북

단신

전북 초·중·고 90% 무상급식...전국 최고

전북지역의 무상급식 실시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북도교육청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전북지역 초·중·고교 가운데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는 90.7%인 683곳에 달한다.

남원시 민원실 새 근무복 입고 "친절하게"

남원시 민원실 창구직원들이 이달부터 새 근무복을 착용하고 민원인을 응대해 호평을 받고 있다. 남원시는 "시민에게 밝고 청결한 모습과 친절함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 10월부터 민원실 창구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복을 착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김제 지평선축제, 세계축제협 3개 부문 수상

김제시는 "지평선축제가 세계 축제협회 총회에서 TV광고 부문 금상, 브로슈어 부문 은상, 축제 상품 부문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에는 세계 30개국이 1500여개의 축제 관련 작품을 출품했다. 지평선축제는 2010년에 방송

동초제 판소리보존회 정음지부 공연 성료

(사)동초제 판소리보존회 정음지부(지부장 손경호)는 지난 13일 정음시 시기동 정음예술회관에서 판소리 '동초제'의 시조인 김연수(1907~1974) 선생을 기리는 공연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인 이번 공연은 동초제 판소리의 맥을 잇는 김찬미 명창의 시와 판소리로 구성된 시낭독을 시작으로 '동초 이랑단'

고창군 '드림 스타트업' 전국 우수기관 선정

고창군이 2011년도 드림 스타트업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사업비 3000만원 추가 지원이 확정됐다. 전국 131개 센터를 대상으로 9개 분야 52개 지표로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고창군은 드림스타트 사업이 지역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생인권 조례 올해도 무산

전북도의회 상정조치 안해...교육청 "학생 인권 퇴보" 우려

전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안'이 또다시 무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과 교권조례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업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벌이는 4건의 소송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임법예고 한 '학생인권 조례안'과 '교권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되자 연내 제정을 위해 기존 조례안을 수정해 제출했다.

레안'과 비교할 때 큰 틀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원칙은 구체화하고, 학생의 책무는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수정했는데도 상정조치 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연으로 학생들의 인권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순창서 장수춤 시연회. 지난 13일 순창 고창장민속마을에서 열린 전국 장수춤 시연회에 참가한 노인들이 열띤 경연을 벌이고 있다.

"철새들에 보금자리" ... 금강 인근 생태습지 4곳 조성

내달 군산서 세계철새축제

군산시가 세계철새축제를 앞두고 금강 인근에 생태습지 4개소를 조성하고 있다. 군산시는 금강변의 철새조망대와 습지생태공원 등 인근 4곳에 철새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달 말 습지조

성 작업이 모두 끝나면 겨울 철새에게는 휴식장소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습지 조성엔 나산 철새축제의 주 무대인 철새조망대 등 주변의 지대가 수심이 깊고 습지가 적어 철새 보금자리로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철새축제 기간에 많은 철새가 모이지 않아 해마다 군산시는 축제

분위가 조성에 애를 먹었다. 군산시 철새생태관리과 관계자는 "철새를 유인하기 위한 습지가 조성된 만큼 올 축제에서는 철새의 군무를 자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9회째를 맞는 '군산 세계 철새축제'는 다음달 21~25일 5일간 개최된다.

부안 우동리 당산제 '민속예술축제' 장려상

부안 우동리 당산제가 전국 우수 한국민속예술로 평가받았다. 부안군은 "우동리 당산제가 지난 13~14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제53회 한국민속예술축

제'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15개 시·도와 이북 5도 등 총 20개 시·도팀이 참가했다. 우동리 당산제 축제보존회 회원 120

여명은은 전북 대표로 참가해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인 당산제를 여과 없이 보여줬다. 한편 우동리 당산제는 마을의 모든 재물을 막고 무병하며 공동체의 화합을 기원하는 전통민속으로 오랫동안 원형이 잘 보존돼 내려오고 있다. 당산제는 격년제로 치러지고 있다.

고창에도 도시가스 본격 공급



고창군내에 도시가스가 본격 공급됐다. 고창군과 전북도시가스사는 지난 11일 고창읍 월곡택지 공원 내에서 '도시가스 공급 개통식'을 가졌다. 군은 올해 말까지 관내 19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도시가스

공급 공사는 한국가스공사가 244억 원을 투입해 장성에서 고창읍까지 15.2km의 주배관을 설치했다. 이어 전북도시가스사에서 46억 원을 투입해 17km의 공급관을 매설함으로써 현재까지 총사업비 290억 원이 투입됐다.

남원 운봉면 춘향골 수출화훼작목 생산단지

백합 양액재배 성공 첫 수확

남원시 운봉면 화훼재배 농민들이 수출용 백합을 양액(養液)재배하는데 성공했다. 남원시는 "고랭지 춘향골 수출화훼작목 생산단지에서 연작 장해 해소와 고품질 수출백합 생산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수출 백합 양액재배에 성공해 첫 수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농민들은 재배 품종으로 '시베리아', '웨리' 등 2품종을 양액 재배하고 3년 연속 재배한 다음 상토를 화학적 소독한 후 다시 재배할 수 있다. 양액 재배는 연중 재배가 가능하며 농가 소득에 안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이 거의 필요 없는 6~11월에 생산·출하되기 때문에 최근 유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이보다 유리하다. 또한 주·야간 일교차가 커서 꽃색이 선명하고, 향기가 강하며 꽃의 수명이 오래 유지되는 등 품질 또한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는 일본 수출 백합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 백합 양액재배 농가를 육성하고 있다. 앞으로 화훼농가의 연중 소득 증대는 물론 수출 화종을 확대해 지역명품 화훼 생산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방장산에 산악자전거 전용 숲길

고창군 연내 사업계획 확정

고창군이 고창읍 방장산 일대에 산악자전거 전용 숲길을 조성한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숲길은 초·중·고급차 용으로 세분화해 만들며, 전체 길이는 15km이다. 펌프 트랙(pump track), 포크로스(4X) 등 다양한 산악자전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트레이닝 선

터도 함께 만든다. 고창군은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산악자전거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형 산악 레포츠 공간으로 꾸미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for allergy treatment. Text: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Includes a photo of a doctor and a list of symptoms.

Advertisement for soriQ audio equipment. Text: '국내개발 | 국내생산 특허 제 10-1171252호'. Features a photo of a man and a list of benefits like 'TV 시청할 때', '노인성 난청', etc.